

동인지와 프로 ‘문학’의 사이, 그리고 『개벽』

朴賢洙*

- | | |
|---------------------|-------------------------|
| I. 『개벽』이 놓인 자리 | IV. 개방의 한계와 그 음영 |
| II. 1920년대 전반의 문학 장 | V. 변화의 음영과 ‘새로운 경향’의 문학 |
| III. 『개벽』 문예면의 변화 | |

• 국문초록

대개의 문학사들은 1922년, 1923년 즈음을 침체기로 규정하면서도 문학의 발표 공간으로서 『개벽』의 역할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 당시는 1920년대 동인지 문학이 일단의 막을 내린 시기였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의 신문 미디어에도 문학을 위한 공간은 할애되지 않았다. 미디어에서 문학에 대한 관심을 재고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지만 관심은 지속되지는 않았다. 『개벽』 문예면에 변화가 일어난 것은 1922년 중반인데, 그것은 새로운 필진의 등장으로 나타났다. 문예면에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문예특집’에 가깝게 꾸며진 1923년 신년호였다. 이전까지 문예면의 필진은 ‘개벽사’의 사원이거나 관계가 있는 인물이었다. 『개벽』 문예면의 변화를 주도했던 인물은 방정환이었는데, 그는 천도교의 간부로 일을 하면서 문학에 대한 관심을 키워갔다. ‘동경’ 유학을 통해 문학이 위상을 새롭게 깨닫게 된 방정환은 『개벽』 문예면의 변화를 견인해 근대문학의 토양을 마련하려 했다. 그런데 1923년 1월 이후 『개벽』 문예면에서 필진의 개방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문예면의 변화가 한계를 보인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작용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김기진은 『개벽』에 일련의 글을 발표하면서 조선에 ‘새로운 경향’의 문학을 정초해 나갔다. 그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문학을 그 도구로 위치시켰지만 곧 환멸에 빠지고 만다.

*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대우교수

당시 취업을 위해 ‘매일신보사’를 찾아간 행적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았다. ‘새로운 경향’의 문학에 대한 모색이 『개벽』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점, 『개벽』 문예면의 개방이 몇몇의 문인들에게 한정되었다는 점 등은 양가적인 성격을 지닌다. 『개벽』 문예면의 음영을 되짚어 보는 작업은 문학과 생활의 관계에 대해 거듭 환기하고자 했던 ‘문인회’의 주장을 떠올리게 한다.

주제어 : 『개벽』, 동인지, 문예면, 방정환, 천도교, 문단, 혁명, ‘문인회’ 등

I. 『개벽』이 놓인 자리

이 글의 관심은 1922년, 1923년 즈음의 문학에 놓이는데, 거기에 대한 조명은 드물게 이루어졌다. 박영희는 당시를 “『創造』, 『廢墟』, 『白潮』 등의 文藝雜誌들도 다 廢刊이 되어” “文壇이 寂寞할 뿐이 아니라 文士들의 기승하게 뻗어 나오던 情熱도 한풀 꺾인 듯이 어딘지 모르게 倦怠와 憂鬱이 떠돌았다”¹⁾고 회고한다. 문단의 적막과 권태를 『창조』, 『폐허』, 『백조』 등의 폐간에서 비롯된 일로 보는 것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 김동인 역시 당시 주요한, 김억, 전영택, 염상섭 등이 “모두 붓을 내어던”져 조선의 근대문학이 “탄생 2년 뒤에 동면 상태에 배지게(‘빠지게’의 오기로 보임; 인용자)” 되었다고 했는데, 그 원인 역시 “『創造』 폐간되고, 『廢墟』 폐간되고, 『白潮』도 없어”²⁾졌다는 데서 찾고 있다. 1922년, 1923년 즈음 동인지의 폐간에 의해 동면 상태에 빠진 것과 같은 권태와 우울이 떠돌았다는 것이다.

앞선 인용에서 드러나듯 당시는 『창조』, 『폐허』, 『백조』 등 1920년대 동인지 문학이 자신들의 짧은 생명을 마쳤던 시기였다. 또 ‘새로운 경향’의 문학이나 그것에 이어지는 프로문학이 모습을 드러내기는 이른 시기이기도 했다. 2장에서 다루겠지만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신문 미디어에 문학을 위한 공간이 존재했던 것도 아니었다. 1922년, 1923년 즈음이 이후에도 문학사의 조명을 받지 못한 것 역시 이러한 상황에 빚진 바 크다. 그런데 침체기나 동면기였음을 강조하면서도 간과되지 않는 언급 역시 존재하는데, 『개벽』의 역할에 관한 강조가 그것이다.

동인 잡지나만치 각각 자기네의 성곽처럼 지내다가 1922년의 동면기에 들었던 것이다. 이 동면에서 깨날 때 그들의 작품을 받아 소화할 만한 기관은 『開闢』 오직 하나였다. …… 지금껏 天道敎의 기관지인 듯한 느낌이 강하던 『開闢』이 차차 종합잡지로 체제를 갖추며, 처음은 좌익 색채가 강렬하다가 민족주의 색채로 변하여 동시에 적지 않은 페이지를 문예난에 제공하였다.³⁾

1) 박영희, 「草創期の 文壇側面史」, 『박영희 전집 II』(이동희 외 편), 영남대 출판부, 1997, 325면.

이하의 인용문은 원문의 표기법을 따르고 띄어쓰기는 현대식으로 표기한다.

2) 김동인, 「文壇三十年의 자취(四)」, 『新天地』 3(6), 1948.6, 184~185면.

3) 김동인, 위의 글, 1948.6, 188~189면.

김동인이 1922년, 1923년 즈음을 진단한 것인데, 진단에는 맞는 부분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어긋나는 부분부터 살펴보면 처음에 좌익 색채가 강렬했다는 부분이 그러한데, 개벽이 사회주의 사상 등을 소개하고 동조하는 글을 실은 것은 1923년에 들어서였다. 『개벽』이 1922년, 1923년 즈음 문예란 등을 통해 동면에 빠진 근대문학에게 발표 공간을 제공했다는 언급은 맞는 부분이다. 인용에 이어지는 당시 잡지가 창간호나 2, 3호로 단명했던 데 반해 『개벽』은 8년 가까이 꾸준히 발행되었다는 언급 역시 시기의 과장 말고는 사실에 가깝다. 김동인은 “지금 一家를 成한 大家들의 搖籃”이어서 “雜誌 『青春』을 이어서 朝鮮文學 運動에 貢獻을 等閑히 생각할 수 없”⁴⁾ 다고 『개벽』의 위상을 재차 강조했다. 이 글의 관심이 위치하는 첫 번째 지점은 여기이다. 『창조』, 『폐허』, 『백조』 등 1920년대 동인지들이 사라진 시기에 문학의 발표 공간으로서 『개벽』의 성격과 역할을 기능하려는 것이다.

문학사의 관심이 대부분 이 시기를 비껴나 있는 것은 1920년대 문학을 동인지 문학과 프로문학이라는 항목을 통해 서술하는 데서도 나타난다.⁵⁾ 이러한 구도에서 『개벽』은 프로문학의 요람에 한정되어 언급되어 왔다. 근래에 들어서 개진된 논의들이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개벽』 혹은 『개벽』의 문학에 대해 접근한 것은 여기에 대한 반향이기도 하다. 먼저 『개벽』이라는 미디어에 대한 실증적 재구 및 분석과 더불어 그 문학적 성격을 가늠한 논의가 개진된 바 있다.⁶⁾ 또 ‘문학시장’이라는 준거를 통해 『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의 신문 미디어와 함께 그것을 이루는 잡지 미디어로 『개벽』에 주목한 논의 역시 제기되었다.⁷⁾ 이 글은 이러한 논의들을 기반으로 1922년, 1923년을 중심으로 한 『개벽』의 문학에 주목하고자

4) 박영희, 「新興文學의 擡頭와 開闢時代回顧」, 『조광』 32호, 1938.6, 54면.

5) 조연현, 『韓國現代文學史』, 성문각, 1969, 4, 5장; 김우중, 『韓國現代小說史』, 성문각, 1982, 3, 4장;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5), 지식산업사, 1989, 10.3 · 10.6; 김재용 외 공저, 『한국근대민족문학사』, 한길사, 1993, 3부, 4부; 민족문학사연구소 엮음, 『새 민족문학사강좌 2』, 창비, 2009, 89~125 · 161~179면 참조.

6) 논의에서는 이 글의 관심과 관련해서 『개벽』의 논조에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이 1923년 후반이었음도 제시되어 있다. 이 글은 변화가 분명히 드러난 시기는 1923년 후반이었지만 문예면에서는 1922년 중반부터 필진이 개방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본다. 여기에 대해서는 최수일, 『『개벽』 연구』, 소명출판사, 2008, 461~485면 참조.

7) 유석환, 「근대 문학시장의 형성과 신문·잡지의 역할」, 성균관대 박사학위 논문, 2013, 94~135면 참조.

한다. 그것은 대부분의 문학사가 1922년, 1923년 즈음을 간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디어로서 『개벽』을 다룬 논의에서도 이 시기의 문학이 온전히 주목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서이다.

이 시기를 문학적 동면기나 침체기로 파악하는 평가는 거칠게 보면 타당한 것 같지만 그 심층에서 이루어진 움직임은 간과했음도 부정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주목해야 할 사실은 당시 『신천지』, 『신생활』 필화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1922년 11월 4일 『신천지』 6호는 발행 직후 발매금지 처분을 당했고 관련자들은 연행되거나 소환되어 취조를 받았다.⁸⁾ 1922년 11월 13일, 18일 발행된 『신생활』 11호, 12호 역시 발매금지 처분을 받았고 사장, 인쇄인, 기자 등 관련자들이 구금되었다.⁹⁾ 식민지 시대의 미디어가 압수나 발매금지 처분을 받는 것은 드물지 않은 일이었다. 이들이 필화사건으로 불리는 이유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구금, 징역 등 사법처분이 행해졌기 때문이다.¹⁰⁾

두 사건은 하나의 기사가 문제가 될 경우 관계자가 사법처분을 받고 해당 미디어는 폐간에 이를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를 계기로 문화정치의 시행과 더불어 등장한 신문, 잡지 등의 미디어들은 시사, 정치와는 다른 영역으로 문학에 주목하게 된다. 1922년 12월 『동아일보』에서 처음으로 문인들의 모임을 주최한 데 이어 1923년 1월에는 『개벽』에서도 문인들의 회합 자리를 마련했다. 또 『개벽』, 『동명』, 『동아일보』 등의 미디어는 신년호를 ‘문예특집’으로 꾸미고 신년호에 실린 글에 원고료를 지급한다. 이 시기 문학과 관련해 1922년 말에서 1923년 초에 있었던 ‘문인회’ 결성의 움직임 역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동아일보』, 『동명』 등의 문학에 대한 관심을 지속되지 않았다. 1923년 이후 『동아일보』에서 ‘연재소설란’과 ‘독자투고란’ 외에 ‘문학’에 할애한 지면을 찾기 힘들다.¹¹⁾ 『동명』 역시 1923년 신년호 이후에는 원작을 밝히지 않은

8) 「朴氏를再次召喚」, 『조선일보』, 1922.12.6, 3면; 「『新天地』主幹拘引」, 『매일신보』, 1922.11.22, 3면 참조.

9) 「新生活主幹도取調中」, 『매일신보』, 1922.11.23., 3면; 「酷禍를받는言論機關」, 『동아일보』, 1922.11.24, 3면.

10) 「雜誌『新天地』押收」, 『동아일보』, 1922.11.12, 2면; 「『新天地』主幹拘引」, 앞의 신문, 1922.11.22, 같은 면 참조.

11) 1923년 6월에 이르러 일요일자 신문을 8면으로 발행했고, 7월부터는 6면으로 발행했다. 전자는

흥미 위주의 읽을거리로 문학을 대신했다. 이와는 달리 필진의 개방으로 상징되는 『개벽』 문예면의 변화는 양가적인 성격을 지녔지만 문학에 대한 관심은 지속시켜 나갔다. 그리고 그 지속은 1923년 중반부터 ‘새로운 경향’의 문학을 받아시키는 것과 연결되었다. 1923년 7월 「Promenade Sentimental」을 발표하는 것을 출발로 일련의 글들을 발표한 김기진의 활동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 박영희 역시 1925년 1월 『개벽』의 학예부 주임이 되어 ‘이광수론’, ‘계급문학시비론’ 등의 특집 기획과 필진의 정립을 통해 『개벽』의 문학적 색깔을 분명히 하려 했다.

이 글이 1922년, 1923년의 문학적인 움직임과 『개벽』의 관계에 대해 주목하고 그 역할을 구명하려는 이유는 여기에도 있다. 이 시기 문학이 필화사건 등을 계기로 콘텐츠로서의 호출에 대응한 것, 또 ‘새로운 경향’의 문학이 정초되는 기반으로 역할한 것 등은 이 시기를 침체기나 공백기로 볼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실제 그것은 1922년 중반부터 이루어진 『개벽』 문예면의 변화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문예면의 변화는 의의와 한계를 동시에 지니는 것이어서 근대문학이 지속될 수 있는 토양이 되기도 했지만 이후 ‘새로운 경향’의 문학 나아가 프로문학에 음영을 남기기도 했다. 이 글의 관심이 위치하는 두 번째 지점은 여기이다. 1922년 중반부터 이루어진 『개벽』 문예면의 변화의 양가적 성격, 곧 그 의의와 한계를 가늠하려는 것이다.

II. 1920년대 전반의 문학 장

『창조』는 1919년 2월 1일 처음 발간되어 동인지 문학 시대의 출발을 알렸다. 김동인, 주요한, 최승만, 전영택, 김환, 오천석, 이동원, 김억, 김찬영 등을 동인으로 했던 『창조』는 1921년 5월 30일에 발행된 9호를 마지막으로 폐간된다. 『폐허』는 『창조』가 나온 지 1년 반 정도 뒤인 1920년 7월 25일 창간되었다. 염상섭, 오상순, 황석우, 민태원, 남궁벽, 나혜석, 김원주 등을 동인으로 했던 『폐허』도 1921년 1월 20일 2호를 중간호로 반 년 정도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백조』는 1922년 1월 1일 처음 발간되

5면에서 8면을 ‘일요호’로 했고 그 중 6, 7면이 문예를 다루었다. 후자는 대개 5, 6면을 ‘일요호’로 했다.

었으며, 현진건, 박종화, 홍사용, 이상화, 노자영, 안석주, 나도향, 박영희 등을 동인으로 했다. 『백조』는 1922년 5월 25일 2호를 발간하고 3호를 발행하려 했지만 비용 문제로 곤란을 겪었다.



〈그림 1〉 왼쪽에서부터 각각 『창조』, 『폐허』, 『백조』의 창간호 표지이다. 1922년, 1923년에 이르면 동인지 문학은 일단의 종언을 고하게 된다. 『창조』 창간호 이미지의 출처는 '아단문고'이다.

1920년대 동인지 문학이 짧은 생명을 지녔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주된 것은 발행 비용의 문제였다. 9호가 발행될 무렵 김동인은 『창조』가 “마지막에는二千부까지 소화되었지만, 그 매상대금(賣上代金)은 어디론가 없어지고 매번을 새루 새 비용을 내”¹²⁾야 하는 것을 곤혹스러워 했다.¹³⁾ 『폐허』 역시 발행에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로, “發行에 關한 모든 費用은, 廣益書館 主人 高敬商 君이 全部 出金하”¹⁴⁾였다고 했다. 『백조』 2호와 3호의 발행 시기는 1년 반 정도의 시간적 차이를 지니는데, 그것은 2호까지 발행을 맡았던 홍사중이 비용을 감당하는 데 난색을

12) 김동인, 「文壇三十年의자취(三)」, 『신천지』 3권 5호, 1948.5, 104면.

13) 『창조』의 인쇄와 판매 등 영업을 '한성도서주식회사'에 위임하려 하거나, 주식회사로 바꾸려고 했던 것 역시 이와 관련되어 있었다. 실제 1920년 5월에 '한성도서주식회사' 문예부 주임으로 김환이, 소년부 주임으로 오천석이 들어가기도 했다. 또 『창조』 9호에 있는 1921년 7월부터는 주식회사를 시작하겠다는 언급을 고려하면 주식회사로의 전환도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관해서는 白岳, 「여러분께」, 『창조』 7호, 1920.7, 77면; 「廣告」, 『창조』 9호, 1921.5, 91면 참조.

14) 「想餘」, 『폐허』 1호, 1920.7, 129~130면.

표했기 때문이었다.¹⁵⁾ 앞선 예들은 당시 동인지가 잡지를 판매한 대금을 통해 다음 호를 발행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발행에 드는 몇 백 원이라는 비용이 개인적인 출자로 감당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동인지들의 짧은 수명은 피할 수 없는 것이기도 했다.¹⁶⁾

이 글이 관심을 지닌 1922년 후반이나 1923년은 동인지 문학이 일단의 종언을 고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동인지에 작품을 발표하는 등 문학 활동을 펼쳐 나갔던, 또 어렵פות하게나마 문단이라는 경계를 만들어갔던 작가들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었을까? 문화정치의 시행과 더불어 등장한 많은 잡지 미디어가 “대개는 한두 호 하다가” 그만두거나 “길어야 삼사 호 출판하다가 폐간되”¹⁷⁾었음을 고려하면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의 신문 미디어가 그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었을지도 모른다.

창간 무렵 『동아일보』에서 문학에 할애된 공간은 4면의 ‘연재소설란’이었다. ‘연재소설란’에는 창간과 함께 『浮萍草』가 실렸으며, 『엘렌의功』, 『붉은실』 등이 연재를 이어갔다.¹⁸⁾ 『浮萍草』의 제목 좌측에는 필자인지 번역자인지 알기 힘든 ‘閔牛步’라는 이름이 병기되어 있으며, 『엘렌의功』, 『붉은실』의 옆에는 ‘千里駒譯’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다. 『동아일보』의 연재소설은 원작소설이나 원작자 등을 밝히지 않았는데, 거기에는 연재소설을 흥미 위주의 읽을 거리로 여기는 미디어의 인식이 작용하고 있었다. 또 ‘閔牛步’, ‘千里駒’이 민태원, 김동성으로, 각각 동경통신원, 조사부 기자 등 『동아일보』의 기자였음에도 유의해야 한다.¹⁹⁾ 기자에게 흥미 위주의 읽을 거리에 대한 번역, 연재 등을 맡겼음을 고려하면, 『동아일보』 ‘연재소설란’을 이 글이 관심을 지닌 문인들의 활동 무대로 보기는 어렵다.

15) 『백조』 1, 2의 발행에 들어간 비용은 홍사용의 사촌형이었던 홍사중이 담당했으며, 3호는 홍사용이 토지 전부를 은행에 저당해 받은 돈을 발행 비용으로 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六號雜記」, 『백조』 3호, 1923.9, 208면; 박종화, 『歷史는 흐르는데 靑山은 말이 없네』, 三慶出版社, 1979, 431~432면 참조.

16) 정병욱, 「조선식산은행원, 식민지를 살다」, 『역사비평』 78, 2007, 331~333면 참조.

17) 『시대일보』, 1925.1.23., 1면.

18) 『浮萍草』가 1920년 4월 1일에서 9월 4일까지 연재되었고, 『엘렌의功』이 1921년 2월 21일에서 7월 2일까지 연재를 이어갔다.

19) 민규호, 「牛步 閔泰瑗」, 『韓國言論人物史話: 8·15前篇』 上, 대한언론학회, 1992, 455~456면 참조.

연재소설 외에는 1920년 4월에서 8월까지 「어린職工의死」, 「그를미든까닭」, 「籠鳥」 등의 소설이 짧게는 한 회, 길게는 10회 정도 게재되었다. 희곡으로는 같은 해 6월 8회 연재된 「四人의心理: 巴里講和會議的一幕」이 있다.²⁰⁾ 이러한 글을 쓴 인물은 유광렬, 김정진 등인데, 이들 역시 『동아일보』의 기자였다. 평론 역시 기고의 형식을 택해 1, 2회 게재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염상섭, 김석송, 민태원 등 기자에 의해 연재된 것이었다.²¹⁾ 또 ‘독자문단’이라는 지면이 1921년 2월 21일부터 1921년 10월 28일까지 운영되었는데, 1921년 11월 이후부터는 폐지되어 ‘연재소설란’을 제외하고는 ‘문학’이 게재될 수 있는 공간을 발견하기 힘들었다.

『조선일보』 역시 당시 4면의 상단에 ‘연재소설란’을 마련했다. ‘연재소설란’에는 창간 무렵 『春夢』, 『박쥐우산』이, 1920년 12월 2일 정간 해제 이후에는 『發展』, 『白髮』 등이 연재되었다.²²⁾ 소설의 제목 좌측에는 ‘觀海生’, ‘擊空生’, ‘靑黃生’이라는 이름이 병기되어 있거나 아무 것도 없는 경우도 있었다.²³⁾ 제목 옆에 필자인지 번역자인지 모를 이름이 병기되어 있었던 것은 『동아일보』의 연재소설과 마찬가지로의 이유에서였다. 『조선일보』는 연재를 시작하면서 직접 연재물이 ‘소설’이 아니라 ‘사실기담’이라는 것, 또 번안도 아니고 번역도 아니고 창작도 아닌 ‘이상야릇한 무엇’이라는 것을 밝히기까지 했다.²⁴⁾

『조선일보』에는 1면에 소설이 연재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初戀」, 「浮雲」 등이 그것이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이들 소설을 연재한 이유는 「初戀」의 연재를 시작

20) 「어린職工의死」는 1920년 4월 2일자 신문에 실렸다. 「그를미든까닭」은 1920년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연재되었고, 「籠鳥」는 같은 해 8월 4일에서 8월 21일까지 실렸다. 희곡 「四人의心理: 巴里講和會議的一幕」은 역시 같은 해 6월 7일에서 6월 15일까지 열흘 가량 연재되었다.

21) 1920년대 『동아일보』 문예면의 양태와 의미에 대해서는 유석환, 앞의 논문, 2012, 94-106쪽 참조.

22) 1920년 3월 9일부터 7월 7일까지는 『春夢』이 연재되었고, 『박쥐우산』은 같은 해 7월 14일부터 연재를 시작했으나 『조선일보』의 정간으로 미완으로 끝났다. 『發展』은 같은 해 12월 2일에서 1921년 4월 21일까지 실렸으며, 역시 1921년 5월 14일부터 『白髮』이 연재를 시작했다.

23) 현진건, 「가작은小說로問題」(〈小說쓰는 小說家가小說쓰는때문에當한 일〉), 『별건곤』 18호, 1929.1, 117-118면 참조.

24) 이 글이 의도하는 바는 ‘연재소설란’ 등에 실린 서사물이 ‘문학’이 아니라서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며 실제 그렇지도 않다. 논의의 관심이 동인지 문학을 통해 등장했던 작가들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한정하는 것이다. 『조선일보』 연재소설의 성격에 대해서는 「白髮」, 『조선일보』, 1921.5.14; 「發展」, 『조선일보』, 1920.12.2; 「處女기자랑」, 『조선일보』, 1921.12.6 참조.

하면서 덧붙인 다음과 같은 인용을 통해 알 수 있다.

○讀者諸氏에게-이 소설은 저 有名한 露西亞 文豪 투게네프○ 傑話 短篇의 하나이다. 彼文傑○ 獨特히 艷麗한 彩筆로 하염업○ 青春의 閑愁哀思를 遺憾 업시 ○려낸 것이다. 寂寞하든 우리 文○도 漸々 文學의 高은 窠이 피라○는 이새 渺然한 이 一篇이라도 ○味업지 으니홀가 하노라.²⁵⁾

인용을 고려하면 『조선일보』 1면의 연재소설 역시 앞선 문인들의 활동으로 보기는 힘들다.²⁶⁾ 연재소설 외에는 4면의 ‘기서란’이 ‘문학’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기서란’에는 주로 전통적인 시가, 논설, 서간, 신시 등이 실렸다.²⁷⁾ 하지만 이들은 구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었으며, 가끔씩 신시가 실릴 때도 창가나 신체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차 정간 해제 이후 ‘기서란’이 ‘기고란’으로 변화되면서, 임노월, 김유방 등의 글이 게재될 때도 있었지만 그런 경우는 흔치 않았다.

여기에서 문화정치의 시행과 함께 등장한 『동아일보』, 『조선일보』 역시 1920년대 동인지 작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지면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의 신문 미디어가 ‘문학’이나 문인들에 대한 인식을 재고할 수 있는 계기 역시 있었는데, 『신천지』, 『신생활』의 필화사건이 그것이었다. 『신천지』와 『신생활』은 1922년 9월 『개벽』, 『조선지광』 등과 함께 ‘신문지법’에 의한 발행을 허가받았다. 1922년 11월 4일자로 발행된 『신천지』 6호는 ‘신문지법’에 의해 발행된 첫 호였는데 11월 10일 발매금지를 당하게 된다. 이어 11월 20일부터 ‘신천지사’의 주간 백대진, 인쇄인 장재흡 등이 연행되고, 사장 오상은, 기자 유병기, 박제호 등도 소환되어 취조를 당했다.²⁸⁾ 1922년 11월 13일, 18일에 발행된 『신생활』 11호, 12호 역시 발행된 직후 발매금지의 처분을 받았다. 『신생활』에 대한 사법처분은 1922년 11월 22일

25) ○은 판독 불가의 글자이다. 판독 불가된 글자가 많은 이유는 신문에 세로로 실린 한 줄 전체가 문개졌기 때문이다. 「初戀」 1회, 『조선일보』, 1920.12.2., 1면.

26) 「曉霧」가 현진건의 창작 소설이었음에도 연재를 한 달도 이어가지 못한 것 역시 앞선 1면의 연재 기준과 어긋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7) 「짚자리」(1920.7.26.) 등의 신시, 「孝悌忠○ 벉을모아~」, 「覺醒嘆」(1920.7.3) 등의 시조, 「農家月令歌」(1920.7.23.~8.6.) 등의 시가가 그것이다.

28) 「雜誌『新天地』押收」, 앞의 신문, 같은 날짜, 2면; 「朴氏를再次召喚」, 앞의 신문, 같은 날짜, 3면 참조.

‘신생활사’ 사장 박희도, 인쇄인 노기정이 소환되어 취조 후 서대문형무소에 구금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사흘 뒤에는 기자인 김명식, 신일용, 유진희 등도 소환되어 종로재판소에 있는 유치감에 구금된다. 『신천지』 필화사건과는 달리 『신생활』의 그것은 출판사 및 미디어 관계자의 가택에 대한 수색과 압수로도 이어졌다.²⁹⁾

1장에서 이들이 필화사건으로 규정되는 것이 발매금지, 압수 등 행정처분이 아니라 관계자에 대한 구금, 징역 등 사법처분으로 이어졌기 때문이었음을 확인했다. 필화사건으로 인해 『신천지』, 『신생활』과 관계가 된 인물들은 6개월에서 2년까지 복역하게 된다. 또 두 잡지는 시기적 차이는 있었지만 필화사건을 계기로 폐간에 이르는 길을 걸었다. 이는 기사가 문제가 될 경우 그 기사의 집필자, 편집자가 감옥에 들어가고 초를 겪을 수도 있다는 것, 또 해당 미디어는 폐간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었다.

그렇다면 문화정치의 시행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많은 신문, 잡지들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동아일보』의 기사는 당시 검열에 대해 “시사의 평론도 아니고 정치관계도 아닌 문예(文藝)나 과학(科學)에 관한 서적까지 검열”을 하는 것은 “조선 문화 발전을 위하여 매우 조치 못한 정책”³⁰⁾이라고 주장했다. 기사가 말하려는 바는 문예나 과학까지 엄격한 검열을 하는 것은 조선이 문화적인 발전을 이루는 데 해가 된다는 것이지만, 이 글은 검열에서 문예를 시사나 정치와는 구별되는 영역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려 한다.

필화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22년 12월 『동아일보』는 처음으로 문인들의 회합을 마련했다. 1923년 1월에는 『개벽』도 문인들을 초청하는 모임을 주최했다. 또 『개벽』, 『동명』, 『동아일보』 등은 1923년 1월호에서 ‘문예’의 비중을 확대해 신년호를 ‘문예특집’에 가깝게 꾸몄다. 『개벽』, 『동아일보』 등이 이전 신년호에 ‘문예특집’을 마련한 적이 없다는 점, 『동명』의 미디어적 성격이 문학 작품의 발표 공간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세 미디어가 1923년 신년호에서 보인 문예에 대한 관심은 예사롭지 않았다.³¹⁾ 『동아일보』, 『동명』, 『개벽』 등은 1923년 신년호에 실린

29) 「新生活主幹도取調中」, 앞의 신문, 같은 날짜, 3면; 「酷禍를받는言論機關」, 앞의 신문, 같은 날짜, 3면.

30) 「出版法을긋치라 문화보급을막는검열제도」, 『동아일보』, 1924.1.17, 2면.

31) 『동명』은 1922년 6월 창간되어 1921년, 1922년 등의 신년호는 존재하지 않는다.

글에 원고료 역시 지급했는데, 『동아일보』, 『동명』 등은 처음으로 원고료 지급한 것이었다.³²⁾

그런데 이후 『동아일보』, 『동명』 등의 미디어가 문학에 관심을 이어간 흔적을 찾기는 어렵다. 1923년 이후 『동아일보』에는 ‘연재소설란’ 외에는 앞선 문인들이 문학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지면이 거의 마련되지 않았다. 1923년 6월부터 일요일자 신문 5면에서 8면까지를 ‘일요호’로 하여 일부를 문예에 할애했는데, ‘일요호’는 『동아일보』의 기자들이 쓴 글이나 독자들의 투고에 의해 메워졌다. 1923년 신년호에서 나타났던 『동명』의 문학에 대한 관심 역시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았다. 1923년 이후 소설은 대부분 번역으로 메워졌는데, 번역 특집이라는 표제를 걸고 발행된 2권 14호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번역은 흥미 위주의 읽을거리였다. 흥미 위주의 읽을거리를 기자가 아니라 이 글의 초점이 놓인 문인들에게 맡길 가능성은 적었으며 원고료가 지급되었을 가능성은 더욱 그랬다.

Ⅲ. 『개벽』 문예면의 변화

『개벽』 문예면에 변화가 일어난 것은 1922년 중반인데, 그것은 새로운 필진의 등장으로 나타났다. 변영로가 1922년 7월에서 9월까지 번역소설 「結婚行進曲」, 「沙漠안에情熱」 등을 발표한 후, 11월, 12월에는 수필 「토막생각」, 「象徴적으로살자」 등을 실었다. 당시까지 변영로는 『폐허』, 『장미촌』 등의 동인으로 활동하면서, 1921년 1월 『폐허』 2호에 「메-터링크와에잇스의神秘思想」을 쓰고 1921년 5월에는 『장미촌』 1호에 권두언 「薔薇村」을 발표한 바 있었다.³³⁾ 주요한은 1922년 12월, 1923년 2월 『개벽』에 「집」, 「산보」, 「넛날의거리」, 「풀밭」 등의 시를 연이어 발표했다. 주요섭도 1922년 10월에 「해와 달」이라는 동화를 실은 후 1923년 1월에는 논설을 발표했

32) 1922년, 1923년 문학계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박현수, 「1920년대 전반기 미디어와 문학의 교차-필화사건, ‘문예특집’, ‘문인회’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74호, 민족문학사학회, 2020, 299~325면 참조.

33) 변영로의 『폐허』 동인 활동에 대해서는 「想餘」, 『폐허』 1호, 1920.7, 122면; 이종호, 「일제시대 아나키즘문학 형성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5, 169~170면 참조.

다. 주요한은 김동인에게 문예잡지 발행을 권유하는 등 『창조』의 창간을 주도한 인물이었다. 『창조』 동인으로 활동하던 중 '상해'로 가 이광수가 주재하던 『독립신문』을 발행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³⁴⁾ 주요섭은 주요한의 동생으로 일본 유학 중 3·1 운동이 일어나자 귀국해 등사판 신문을 발행하다가 10개월간 옥고를 겪었다. 『개벽』에 글을 발표할 때까지 눈에 띄는 문학이나 동인지 활동을 한 적은 없었다.³⁵⁾

『개벽』 문예면의 변화는 1923년으로 이어졌다. 이광수가 1923년 3월부터 「거룩한 죽음」을 2회 연재했으며, 김동인 역시 8월부터 「눈을겨오쓸새」를 4회에 걸쳐 게재했다. 이광수는 1921년 3월 '상해'에서 귀국하다가 경찰에게 검거되었지만 불기소되어 총독부와의 밀약을 의심받았으며 1922년 5월에는 「민족개조론」을 발표해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상황이었다. 김동인은 9호까지 『창조』의 발행을 주도한 인물이었지만, 당시에는 유흥에 빠져 문학적으로는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음을 회고한 바 있다.

이들 외에도 나도향, 홍사용, 안석주, 박영희, 김기진, 박종화, 노자영, 양주동, 오천석, 민태원, 김정진, 백기만, 김동명 등이 1923년부터 『개벽』에 글을 처음 발표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오천석은 김동인, 주요한 등과 함께 『창조』 동인이었으며, 민태원은 『동아일보』 기자이자 변영로와 함께 『폐허』 동인으로 활동했다. 새로운 필자들 가운데 나도향, 박영희, 박종화, 김기진, 홍사용, 안석주, 노자영 등 『백조』의 동인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는 문예면의 변화를 주도한 인물을 다루면서 상론하겠다. 여기에서 1922년 중반부터 『개벽』에 등장한 필자들은 대부분 이전 동인지에서 활동을 했던 인물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개벽』 문예면의 변화는 창간 즈음 그것과의 비교에서 온전히 드러난다. 『개벽』의 문예에 대한 관심은 창간 당시부터 적지 않았다. 1호에서 72호까지 788개의 기사 중 문예는 37.9%였으며 호별로는 평균 11편 정도였다고 한다. 연도별로 파악하면 1920년은 27.6%, 1921년은 30.6%, 1922년은 33.4%, 1923년은 34.2% 등으로 시기에 따라 비중이 높아졌음도 알 수 있다. 특히 1922년 1월호부터 문예면이 따로 편집되었다는 것에서도 문예면에 대한 『개벽』의 관심을 읽을 수 있다.³⁶⁾

34) 김동인, 「文壇十五年裏面史」, 『조선일보』, 1934.4.1.

35) 김동인, 「文壇三十年의자취(二)」, 『신천지』 3권 4호, 1948.4·5, 146~150면 참조.

36) 최수일, 앞의 책, 2008, 405~408쪽; 유석환, 앞의 논문, 2013, 125~126면 참조.

창간부터 1년 정도 『개벽』에 소설을 발표한 인물은 방정환, 현진건 등이었다. 방정환은 「流帆」, 「그날밤」 등을 모두 4회 실었다. 방정환은 천도교의 3대 교주였던 손병희의 사위로 당시 ‘개벽사’의 사원으로 일하고 있었다.³⁷⁾ 현진건은 번역 「幸福」, 「石竹花」 등과 창작 「犧牲花」, 「貧妻」 등을 발표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갔다.³⁸⁾ “그새 開關의 學藝部長로 잇든 나의 堂叔인 玄哲”에게 “내어달라고 졸르고 복갓”³⁹⁾다는 언급처럼 현진건은 당숙이었던 현철의 도움으로 작품을 발표하게 된다. 현철은 당시 『개벽』의 학예부 주임을 맡고 있었으며 ‘천도교청년회’의 임원이었다.⁴⁰⁾

『개벽』 문예면에 변화가 있기까지 ‘개벽사’에서 일을 하거나 그와 관계되는 인물이 필자였던 것은 다른 장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920년 6월부터 1922년 중반까지 『개벽』의 희곡은 현철이 담당했고, 시를 주로 발표한 인물은 김석송, 김억 등이었다. 또 평론을 썼던 필자 역시 현철, 김억 등이었다. 희곡과 평론 등을 썼던 현철이 『개벽』의 학예부 주임으로 활동하고 있었음은 확인한 바 있다. 김석송은 1920년 『개벽』 12월호에 발표한 시 「離郷」 말미에 “六一. 一一. 一一, 金石松作”이라는 부기를 달았다.⁴¹⁾ 동학이 창도된 해를 기준으로 삼는 ‘布德’ 연호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김석송이 천도교도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창간부터 2년 가까이 문예면의 필진이 ‘개벽사’의 사원이거나 관계가 있는 인물이었음을 고려하면 1922년 중반 이루어진 문예면의 변화는 두드러진다. 변화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1923년 신년호였다. 변영로, 박영희, 노자영 등의 시, 나도향, 김동인 등의 소설, 김정진, 박종화, 박종홍 등의 평론, 안석주의 그림 등 총 15편의 문예 작품을 실었다. ‘문예특집’임을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걸맞은 신년호를 발행한 것이었다. 같은 신년호라도 이전까지 신년호의 문예와도 차이가 있었다. 1921년과 1922년 신년호 역시 다른 호와 비교하면 문예의 편수는 많았다. 그런데 글을

37) 당시 ‘개벽사’에서 근무했던 것에 대해서는 「社員名單」, 『개벽』 7호, 1921.1, 목차 앞면.

38) 이 밖에 소설을 게재한 인물은 해복생(2호), 김동인(9호), 주요섭(10호), 보월생(11호) 등이다. 각각 1편의 소설을 실었는데 번역도 있고 창작도 있다.

39) 빙허, 「犧牲花」(〈處女作發表當時의感想〉), 『조선문단』 6호, 1925.3, 69~70면.

40) “學藝部 主任 玄哲雲 君이 病으로 여러 날을 고생하였”다는 언급을 통해 현철이 학예부 주임으로 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編輯局消息」, 『개벽』 21호, 1922.3, 판권간기면; 「開關社社友制의設行에關한趣意와規程」, 『개벽』 29호, 1922.11, 별지면 참조.

41) 김석송, 「離郷」, 『개벽』 6호, 1920.12, 116면.

쓴 인물이 방정환, 현철, 현진건, 김석송, 김억 등 기존의 필진들이라서 한 사람이 여러 편의 글을 게재했다.

그렇다면 1922년 중반부터 이루어진 문예면의 변화를 주도했던 인물은 누구였을까? 이 문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글로 1922년 10월 『개벽』에 게재된 「編輯餘言」이 있다.

본사의 사장 대리인 이종린 씨는 천도교회월보사의 본무 다망으로 인하여
유월 삼십일일(삼십일의 오기임; 인용자), 학예부 주임 현희운 씨는 일신상의
형편에 의하여 칠월 삼십일일에 각기 입을 사면하다⁴²⁾

1922년 6월 30일까지 사장 대리인으로 일했던 이종린이 사면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 글의 관심은 뒤에 이어지는 같은 해 7월 31일자로 현철이 일신상의 형편으로 학예부 주임을 그만두었다는 데 놓인다. 그 시점이 『개벽』 문예면의 변화가 이루어졌던 시기와 겹쳐져 있음은 흥미롭다. 그러면 현철에 이어 『개벽』의 학예부 주임이 되었던 인물은 누구였을까? 현철에 후임으로 학예부 주임이 된 인물은 박영희였는데, 그 시기는 1925년 1월로 시간적인 거리가 있었다.⁴³⁾ 이는 1922년 8월에서 1924년 12월까지 『개벽』의 학예부 주임이 없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예부 주임이 없는 상태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인데, 1923년 1월호 『개벽』에 실린 ‘직원 명단’은 이 문제에 대해 간접적인 접근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직원 명단’에는 『개벽』의 편집자로 이돈화, 김기전, 차상찬, 박달성, 그리고 방정환 등이 제시되어 있다.⁴⁴⁾ 당시 이돈화는 편집인이었고 김기전은 편집국장을 맡고 있었다. 또 차상찬은 정경부 주임, 박달성은 사회부 주임이었다. 이를 고려하면 공식적으로 학예부 주임은 없었지만 방정환이 그 일을 담당했을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방정환이 『개벽』이 창간될 때부터 ‘개벽사’의 사원이었다는 것은 앞서 확인한 바 있는데, ‘천도교청년회’의 임원으로 선출된 것은 그것보다 앞섰다. 1919년 3·1 운동 직후 천도교는 손병희를 비롯해 지도층 15명이 검거되는 탄압을 받았다. 당시를 계기

42) 「編輯餘言」, 『개벽』 28호, 1922.10, 판권간기면.

43) 박영희가 ‘개벽사’의 학예부 주임이 된 것에 대해서는 「餘言」, 『개벽』 55호, 1925.1, 판권간기면 참조.

44) 1923년 1월 직원 명단은 『개벽』 31호, 1923.1, 일반면과 문예면 사이면 참조.

로 ‘천도교청년회’가 조직되는 등 체제의 정비가 이루어졌는데, 방정환이 ‘천도교청년회’의 임원이 된 것은 그 과정에서였다.⁴⁵⁾ 또 1921년 5월 “소년의 덕지체의 발육을 시킬 방법과 실행을 강구”⁴⁶⁾하는 것을 취지로 한 ‘천도교소년회’가 결성되었는데, 그것 역시 방정환의 주도로 행해졌다.

한편 방정환은 일찍부터 『청춘』, 『유심』 등의 잡지에 작품을 투고하거나 발표하는 것을 통해 문학에 대한 열의를 키워 나갔다. 1917년 9월부터 1918년 9월까지 『청춘』 현상문예에 여러 차례 투고해 「少年御者」, 「바람」, 「牛乳配達夫」, 「觀花」, 「봄」, 「시냇가」 등이 당선되거나 선외가작으로 뽑힌다.⁴⁷⁾ 『청춘』이 폐간된 후에는 한용운이 주관한 『유심』의 현상문예에도 투고해 모두 세 편의 작품이 뽑혔다. 『청춘』, 『유심』 등의 현상문예에 대한 관심은 자신이 직접 잡지 『신청년』을 창간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신청년』은 1919년 1월 20일부터 다음 해 7월까지 모두 6호가 발행되었는데, 4호를 기점으로 운영진의 성격이나 잡지의 내용에서 차이를 보였다.⁴⁸⁾ 방정환은 이복원, 이중각, 유광렬 등과 함께 『신청년』의 1호부터 3호까지 활동을 했다. 그는 운영을 주도하는 한편 『金時計』, 「電車一分時」, 「사랑하난아우」, 「사랑의무덤」, 「貴여운犧牲」(譯), 「참된동정」 등 많은 글을 발표했다. 『신청년』은 4호부터 나도향, 박영희, 최승일 등이 주도를 하고 박종화, 현진건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변화가 이루어졌다.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사실은 방정환이 『신청년』 3호가 발행된 직후 ‘동경’으로 유학을 떠나 후기 『신청년』의 동인들과는 교류를 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다.

방정환이 『개벽』의 창간 초기 「流帆」, 「그날밤」 등 소설을 실었음은 확인한 바 있는데, 방정환은 소설 외에도 1920년 6월 창간 당시부터 1921년 4월까지 『개벽』에 다양한 장르의 글을 발표했다. 「어머님」, 「新生の膳物」, 「華藏寺의아침」, 「어린이노래」, 「秋窓隨筆」, 「望郷」 등의 시와 수필을 실었다. 또 「銀파리」, 「깨여가는길」 등의

45) 「敎理講研部の第一例會觀」, 『천도교회월보』 110호, 1919.10, 63면 참조.

46) 『천도교청년회회보』 3호. 여기에서는 천도교청년회중앙본부, 『천도교청년회80년사』, 글나루, 2000, 79면.

47) 「觀花」·「봄」 등 상금 1원이나 50전에 당선된 방정환의 작품들은 『청춘』 15호에 실려 있다. 15호에도 방정환의 「天國」이 상금 1원에, 「시냇가」가 선외가작으로 뽑혔다는 것이 실려 있다.

48) 『신청년』의 담당층, 발간 과정과 위상에 관해서는 한기형, 「잡지 『新青年』과 경성청년구락부」, 『서지학보』 26, 서지학회, 2002, 165~206면 참조.

우화 역시 발표했다. 이는 방정환이 『개벽』을 활동 공간으로 천도교 간부로 일을 하면서 문학에 대한 관심 역시 키워나갔음을 뜻한다. 그런데 이 시기는 『창조』, 『폐허』, 또 『백조』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신청년』 등이 발행되고 있을 때이었다. 그런데 앞선 잡지의 동인들 가운데 『개벽』에 글을 발표했던 인물이 김억 정도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방정환이 후기 『신청년』의 동인들과 교류가 없었다는 것과 함께, 이후 『개벽』이 시도한 변화에서 음영으로 작용했다.

그런데 1921년 5월부터 『개벽』에서 방정환의 활동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 1922년 중반까지 1920년 12월 연재를 시작했던 「銀과리」를 두 번 더 연재하는 것과 「狼犬으로부터家犬에게」를 발표하는 데 그쳤다. 앞선 사실과 시기 등을 고려하면 『개벽』에서의 활동이 줄어든 것은 방정환이 일본의 '동양(東洋)'대학에 입학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방정환은 1920년 9월 15일 경 '동경'으로 유학을 떠나 1921년 4월 9일에는 동양대학 전문학부 문화학과에 입학한다.⁴⁹⁾ 청강생으로 입학했지만 처음 경험하는 유학 생활에 많은 시간과 품을 들여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글은 방정환이 문예면의 변화가 시작되던 1922년 중반부터 『개벽』에서 다시 활발한 활동을 펼친다는 데 주목하려 한다. 1922년 7월호에 번역 「湖水의女王」을, 8월호에는 수필 「公園靑調」을 발표하고, 9월호에는 「湖水의女王」⁵⁰⁾을 다시 수록했다. 또 11월호에는 번역 「털보壯士」를, 1923년 1월에는 평론 「새로開拓되는童畫에 關하여」를 발표한다. 그 시기가 방정환이 동양대학 전문학부 문화학과를 그만둔 즈음이라는 것도 흥미롭다. 앞선 '직원 명단' 등을 고려하면 문예면의 변화가 행해질 때 방정환이 다시 『개벽』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펼쳤다는 사실은 단순히 공교로운 것만으로 보기는 힘들다.⁵¹⁾

『개벽』 문예면의 변화를 주도한 인물이 방정환이었음은 『백조』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앞서 1923년부터 『개벽』에 새롭게 등장한 작가들 중에 『백조』 동인이 두드러지게 많았음을 확인한 바 있다. 방정환이 『백조』의 동인으로 언급된 것은 1923

49) 방정환의 '동경' 유학 당시 체류, 학적, 귀국 등에 대해서는 仲村修, 「方定煥研究序論-東京時代を中心」, 『靑丘學術論集』 14, 1999, 77~113면 참조.

50) 1922년 7월호에는 부록으로 실렸던 「湖水의女王」을 1922년 9월호에는 본문으로 다시 수록했다.

51) 1920년대 전반기 『개벽』 문예면의 변화에 대한 개괄적 검토는 박현수, 「1920년대 전반기 미디어에서 나도향 소설의 위치 -『동아일보』, 『개벽』 등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42호, 상허학회, 2014, 242~259면 참조.

년 9월 발행된 3호에서였는데, 박종화의 일기를 보면 방정환이 동인이 된 시기는 그보다 이른 1923년 1월이었다.⁵²⁾ 『백조』의 동인들이 『개벽』에 글을 처음으로 발표한 시기인 1923년 1월과 맞물림을 알 수 있다. 또 다음 장에서 다루겠지만 김기진 역시 1923년 7월 『개벽』에 「Promenade Sentimental」을 게재한 후 연이어 글을 발표하는 등 거의 『개벽』의 고정 필자로 활동하게 된다. 그런데 원래 『백조』에 실으려던 「Promenade Sentimental」을 『개벽』으로 옮겨가 발표한 것도 방정환에 의해서였다.

방정환이 1920년 9월 중순 ‘동경’으로 유학을 떠났음을 살펴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방정환의 유학 당시 일본 문학의 상황이다. 『日本近代讀者の成立』에서 마에다 아이(前田愛)는 다이쇼(大正) 10년, 곧 1920년대에 들어서 일본에서 독자들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이유를 신중간층과 관련해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신중간층이 140만 명에 육박했는데, 신중간층 가운데는 중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또 그들의 수양비 목록에 문학, 부인, 아동 등을 독자로 하는 신문, 잡지 등의 구독을 위한 항목이 산정되어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⁵³⁾ 또 고노 겐스케(紅野謙介)는 『文化の市場:交通する』에서 당시를 일본에서 현상소설 제도가 일단의 매듭을 지은 시기로 파악했다. 1897년 『万朝報』의 ‘懸賞小説毎週募集’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현상소설의 시대가 독자들의 표현 욕망, 미디어 권력에의 욕망, 경제적 욕망 등을 자극했지만 1910년대에 그 막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후 문학장은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전개되었는데, 하나는 동인지의 시대의 개막이고, 다른 하나는 독서 대중을 겨냥한 통속소설이 성황을 이룬 것이다. 실제 전자는 통속소설의 성황과 맞물려 문학을 초월적인 공간에 위치시키고 상징이익을 취했다는 데서 후자의 반향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⁵⁴⁾

방정환은 ‘동경’ 유학을 계기로 「새로開拓되는童畫에關하여」를 발표하는 등 아동 문학에 매진하겠다는 결심을 밝힌다. 1922년 7월 『사랑의선물』의 발행하고 1923년

52) 방정환이 『백조』 동인으로 추천된 시기와 인물에 관해서는 윤병로, 『박종화의 삶과 문학-미공개월 단일기평설』, 성균관대 출판부, 1992, 75-76면 참조.

53) 前田愛, 유은경 역, 「다이쇼 후기 통속소설의 전개 -부인 잡지의 독자층」, 『일본근대독자의 성립』, 이룸, 2003, 275~294면 참조.

54) 紅野謙介, 「投機/思索の對象としての文學」, 『文化の市場: 交通する』, 東京大學出版部, 2001, 127~152면 참조.

3월 아동잡지 『어린이』의 창간을 주도했던 것은 그 연장선상에 있었다. 유학을 할 당시 일본 문학의 중심에는 당시 전성기를 맞았던 아동문학이 위치하고 있었다. 이와 야 사자나미(巖谷小波)의 오토기바나시(お伽噺)가 아동문학의 경계를 분명히 한 가운데 오가와 미메이(小川未明), 스즈키 마에키치(鈴木三重吉) 등이 주도한 예술적 동화·동요 운동 역시 큰 호응을 얻었다.⁵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잡지 미디어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實業之日本社’에서 발행한 『少年俱樂部』 같은 잡지는 1920년대 전반기 100만 부 가까이 팔릴 정도였다.⁵⁶⁾

이러한 사실들은 방정환이 유학을 통해 일본의 문학 장이나 그 상황에 대해 인지했음을 말해준다. 또 그것은 인지로 머문 것이 아니라 방정환 자신의 활동과도 연결이 되는데, 앞서 언급한 『사랑의선물』이 그것이다. 방정환은 1922년 7월 동화 10편을 번역해 ‘세계명작동화집’이란 부제를 달고 출판한다.⁵⁷⁾ 『사랑의선물』은 초판이 10일이 안 되어 매진되고 재판도 12일 만에 다 팔려 8월 13일 3판을 인쇄했다고 한다.⁵⁸⁾ 이후 『사랑의선물』은 1926년 7월 10판을 발간하는 등 2만 부 이상 팔려 1920년대의 베스트셀러로 자리하게 된다. 일본의 문학 장에 대한 목도와 『사랑의선물』의 성공은 방정환에게 ‘문학’이 지닌 위력에 대해 숙고하게 만들었다. 또 그것은 방정환이 1922년 7월부터 『개벽』에서 다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문예면의 변화를 주도하는 데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방정환은 『개벽』 문예면의 변화를 이끌어 근대문학이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는데, 그것이 지닌 한계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다.

IV. 개방의 한계와 그 음영

1922년 중반부터 『개벽』 문예면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이전까지 ‘개벽사’와 관련된 필진에서 벗어나 문호를 개방하는 것으로 집약되었다. 문예면의 변화를

55) 藤田圭雄, 「「童話」という呼び名」, 『児童文學』, 有精堂, 1977, 118면.

56) 鳥越信, 『近代日本児童文學史研究』, おうふう, 1994, 36~39면.

57) 『어린이』 42호, 1926.7, 표지 뒷면.

58) 『동아일보』, 1922.8.13.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문예특집’에 가깝게 꾸며진 1923년 신년호로, 모두 15편의 문예 작품이 실렸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1923년 1월 이후 『개벽』 문예면에서 필진의 개방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먼저 소설 장르에서는 현진건의 「지새는안개」가 1923년 2월호부터 10월호까지 모두 9회에 걸쳐 연재된다. 또 이광수가 「거룩한죽음」을 3월호부터 2회에 걸쳐 발표했고, 김동인이 「눈을겨오셀새」를 7월부터 4회에 걸쳐 연재했다. 월간으로 발행되는 잡지 미디어가 한 회로 완결되는 단편을 신는 것을 원칙으로 했음을 고려하면, 연재가 되는 소설을 게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특히 한 호에는 소설이 한, 두 편 정도가 게재되어, 앞의 소설들이 동시에 실렸을 때는 다른 소설들이 발표될 공간이 없었다. 신년호와 달리 이후 1923년 『개벽』에 소설을 실은 작가가 네 명에 머문 것 역시 이와 그 연장선상에 있다.

시 장르에는 김석송, 김억 등이 여러 차례 게재한 것이 눈에 띈다. 두 인물은 『개벽』의 창간 즈음부터 활동을 한 작가여서 필진의 확대를 보기는 힘들다. 김소월이 세 차례에 걸쳐 시를 발표했으나 이듬해인 1924년에는 한 차례도 발표하지 않는다. 그 밖에는 주요한이 두 차례, 홍사용, 오천석, 김기진, 김동명 등이 한 차례씩 게재하는 데 그쳤다. 심지어 1923년 4월호에는 김석송, 6월호에는 오천석의 시만이 실리기도 했다. 평론은 김억, 박종화, 임장화, 임정재 등이 한 차례씩 발표를 했다. 수필은 황석우, 민태원, 김기진 등이 한 차례씩 실었으며, 희곡은 역시 김찬영, 조명희 등이 한, 두 차례 정도 발표하는 데 그쳤다.

『개벽』이 문예면의 확대를 의도했음에도 한계를 보였던 먼저의 이유는 당시까지 ‘문단’이라는 카테고리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까지도 작품 발표는 『창조』, 『폐허』, 『백조』 등 동인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그 전체를 아우르는 카테고리는 조형되거나 인지되지 못했다. 문학을 전문으로 하는 문인들의 모임인 ‘문단’이라는 카테고리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나 소설 등을 발표할 작가들 찾는 것, 나아가 그것을 통해 필진의 문호를 확장하는 일은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1장에서 1922년 말, 1923년 초 ‘동아일보사’, ‘개벽사’ 등에서 문인들의 회동을 마련했음을 거칠게 언급한 바 있다. ‘동아일보사’에서는 1922년 12월 19일 문인들을 초청해 회합 자리를 마련했다. 회합에는 양건식, 현진건, 변영로, 방정환, 김형원, 노자영, 이일, 염상섭, 현철, 나도향, 박영희, 안석주 등이 참석했다. 『동아일보』는 1923년 1월 1일, 1월 3일자 신문을 ‘문예특집’으로 꾸몄는데, 모임은 ‘문예특집’의

취지를 얘기하고 원고 청탁을 하는 성격을 지녔다.⁵⁹⁾ ‘동아일보사’에서 주최한 회동 이후 『개벽』에서도 문인들의 모임 자리를 마련했다. 회동에는 박영희, 나도향, 이광수, 김기진, 홍사용, 염상섭, 김억, 현철, 변영로, 김운정, 방정환, 박종화 등이 참석했다.⁶⁰⁾

제대로 주목되지는 않았지만 모임은 각자 동인지를 통해 활동했던 문인들이 처음으로 모여서 서로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김기진은 ‘개벽사’에서 주최한 모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이날 밤 그 자리에서 「白潮」와 「廢墟」의 同人들 간에 조그만 衝突이 있었다
洪露雀과 玄憑虛 두 사람이 橫步와 또 누구인가 지금 記憶이 안나는 文友와
입씨름을 하다가 그것이 커져서 마침내 나는 그 싸움에 주먹질을 하기까지 했는
데⁶¹⁾

인용은 모임에서 『백조』와 『폐허』 동인들 간에 다툼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데, 다툼 역시 이전까지 동인지를 중심으로 교류했던 문인들이 한데 모인 데서 일어난 일이었다. 이는 당시 문인들이 모두 모이는 회합에 익숙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그런 의미에서 ‘동아일보사’, ‘개벽사’ 등에서 마련한 모임은 조선에서 처음으로 ‘문단’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드는 계기이기도 했다.

그런데도 이후 『개벽』 문예면의 필자 선정이 몇몇에 한정되었다는 것이 의아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특히 당시 『개벽』 문예면의 변화를 주도했던 방정환이 두 회합에 모두 참석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럴 것이다. 하지만 회합은 처음 있었던 것으로 당시 ‘문단’이라는 카테고리는 어렵פות하게밖에 인지되지 못했다. 카테고리가 점차 뚜렷한 모습을 형성해 나가 분명한 경계가 만들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또 1920년 8월까지 전기 『신청년』에서만 활동했던 방정환이 한, 두 차례의 모임만을 계기로 『백조』는 차치하더라도 『창조』, 『폐허』의 동인들을 필자로 섭외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59) 박종화는 당시 “연말 초대를 계기로 해서 동아일보사에서는 신년호에 나에게 시를 청했다”고 회고했다. 여기에 관해서는 박종화, 앞의 책, 1979, 455면 참조.

60) 박종화, 앞의 책, 1979, 454면.

61) 김기진, 「樹州回想記」, 『조선일보』, 1961.3.17. 4면.

그런데 문예면의 필자 선정에는 『개벽』이 천도교의 기관지로 발행이 되었다는 사실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⁶²⁾ 1923년 1월 『개벽』 31호에 실린 직원 명단에는 이돈화, 김기진, 박달성, 차상찬, 방정환 등이 편집진으로 되어 있음은 확인한 바 있다. 그런데 방정환을 비롯한 『개벽』의 편집진은 모두 ‘천도교청년회’에 소속되어 있었다.⁶³⁾ 『개벽』의 편집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모두 천도교도였음을 고려하면, 사상면은 물론 문예면도 거기에서 자유롭지는 못했을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김기진이 『개벽』에 글을 발표하기 위해 방정환의 소개로 당시 편집국장이었던 김기전을 만나야 했던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문예면에 미친 천도교 기관지로서의 영향은 크게 둘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문예면의 필진과 관련된 것이다. 1923년 2월부터 10월까지 모두 아홉 번에 걸쳐 「지새는안개」를 연재한 사실을 통해, 당시에도 현진건이 여전히 주요한 필자로 활동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현진건이 창간 즈음 『개벽』을 주된 발표 공간으로 했던 것이 학예부 주임이자 천도교청년회 임원이었던 당숙 현철과 관련이 있었음은 이미 검토했다. 또 시 부분에서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김석송 역시 천도교와 관련된 인물임도 앞서 확인한 바 있다.

다른 하나의 영향은 문예의 내용과 관련된 것이다. 1923년 3월부터 『개벽』에는 두 차례에 걸쳐 이광수의 「거룩한죽음」이 연재되었다. 그런데 「거룩한죽음」은 동학을 창시한 최제우를 중심인물로 해 체포에서부터 처형까지의 과정을 다룬 소설이다. 최제우는 동학을 창시한 후 경주 현곡면 일대에서 포교를 시작해 교세를 넓혀간다. 조정에서는 서양의 사술을 답습해 백성을 현혹시킨다는 명목으로 관군을 보내 최제우를 체포한 후 이듬해 좌도난정의 죄목으로 참형을 시킨다. 여기에서 「거룩한죽음」이 동학, 곧 천도교의 창시자인 최제우를 기리기 위한 소설임을 알 수 있는데, ‘신문지법’에 의한 발행 허가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천도교의 창시자를 다룬 소설을 게재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다.

62) 최수일은 『개벽』 1호에서 30호까지 종교 관련 기사, 특히 천도교 관련 기사가 드물다는 점을 들어 『개벽』을 천도교기관지로 보는 데 의문을 제기한다. 하지만 천도교청년회의 임원들로 구성된 『개벽』의 편집진이나 집필진 등을 고려하면 거기에 대한 접근은 조금 더 신중한 태도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최수일, 앞의 책, 2008, 372~375면 참조.

63) 1923년 1월 직원 명단은 『개벽』 31호, 1923.1, 같은 면; 천도교청년회중앙본부, 앞의 책, 2000, 300~304면 참조.

하지만 『개벽』 문예면의 개방이 한정적이었던 주된 이유는 그것이 방정환의 인적 교류에 기대고 있어서였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김기진이 『개벽』의 필진으로 참여하게 되는 과정이다. 김기진은 1923년 7월 「Promenade Sentimental」이라는 글을 계기로 「哀戀慕思」, 「클라르테運動의世界化」, 「샤르뤼스 對 로맨 · 로란間的 爭論」, 「支配階級教化 · 被支配階級教化」, 「눈물의巡禮」, 「今日의文學 · 明日의文學」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글을 발표하는 등 거의 『개벽』에 고정적인 지면을 확보하게 된다.

그런데 「Promenade Sentimental」은 김기진이 동인으로 가입한 『백조』 3호에 실으려 했던 글이었다. 그런데 당시 『백조』의 발행이 지연되자 “開闢社의 故 小波가” “感想文을 「白潮」에서 「開闢」으로 옮겨가 버리었다”⁶⁴⁾는 것이다. 방정환은 “金基鎭 方定煥 두 분 兄님이 새로이 白潮 同人이 되어 주셨다”⁶⁵⁾는 언급처럼 『백조』 3호부터 김기진과 함께 『백조』의 동인이 되었다. 김기진 역시 “小波 方定煥은 그(1923년: 인용자)보다 數年 前에 東京에서부터 親하게 알고 있었”⁶⁶⁾다고 언급했다. 이렇게 볼 때 김기진이 『개벽』에 글을 싣고 고정적인 필자로 활동하게 된 계기는 ‘동경’에서부터 맺어온 방정환과의 교류였음을 알 수 있다.⁶⁷⁾ 비슷한 시기 방정환은 ‘개벽사’에서 김기진에게 김석송, 이성해 등을 소개해 이후 ‘파스쿨라’가 만들어지는 계기를 마련했는데, 이 역시 이들 관계의 중심에 방정환이 위치하고 있었음을 뜻한다.⁶⁸⁾

앞선 사실들은 1923년 중반까지도 『개벽』 문예면의 필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방정환의 인적 교류에 기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바꾸어 말하면 그것은 그때까지 인적 교류 외에 필자를 선정하는 뚜렷한 방법이 없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또 하나 1923년에 들어서 문예면의 개방이 한정적이었던 데는 1923년 3월 방정환의 주도로 창간한 잡지 『어린이』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방정환이 ‘동경’ 유학

64) 김기진, 「나의 文學青年時代(1)」, 『신동아』 35호, 1934.9, 132면.

65) 「六號雜記」, 『백조』 제3호, 1923.9, 208면.

66) 김기진, 「李相和형」, 『신천지』 9권 9호, 1954.9, 152면.

67) 방정환은 김기진을 『개벽』의 편집국장을 맡고 있었던 김기전에게 소개하자 김기전은 김기진의 글에 호감을 드러내며 권두에 실을 논문과 문예란에 게재할 글을 써 달라 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기진, 「내 아호의 유래 ‘팔봉」, 『현대문학』, 1964.6. 여기서는 『김팔봉문학전집』 II (홍정선 편, 문학과지성사, 1988), 443~445면 참조.

68) 김기진, 「나와『카프』文學時代(4)」, 『대한일보』, 1969.6.24.

경험을 통해 문학과 미디어의 위상에 대해 깨닫는 한편 그것이 『개벽』 문예면의 개방과 아동문학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음을 검토했다. 잡지 『어린이』의 창간 역시 그 일환이었는데, 창간 후 독자는 급격히 증가해 9호부터 잡지가 매진되기 시작했으며 17호에 이르러서는 발행 부수가 당시 다른 잡지의 3, 4배나 될 정도로 큰 호응을 받았다.⁶⁹⁾ 아이러니하게 독자들의 호응과 거기에 따른 잡지 『어린이』의 부각은 그 편집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었던 방정환이 『개벽』 문예면에 매진할 수 없게 하는 원인으로도 작용했다는 것이다.

문예면의 개방이 한정적이었음을 고려하면 『개벽』이 1922년 말 이루어졌던 ‘문인회’ 결성의 움직임에 주목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1922년 12월 24일, 또 다음 해 1월 5일 염상섭, 변영로, 오상순, 황석우, 이병도 등이 발기를 해 문인들 10여 명이 모임을 갖고 ‘문인회’를 결성했다.⁷⁰⁾ 결성을 주도했던 염상섭은 1923년 1월 1일 발표한 「文人會組織에關하여」에서 ‘문인회’의 취지를 밝힌다. 그는 문학에는 “浮薄한 遊藝的 分子가 介在”해서는 안 되며, 문인은 누구보다 전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며 내적 생활의 백병전에 참여하는 투사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인회’의 필요 역시 “世間에서 誤解하며 文人 自身도 스스로 거기에 빠지기 쉬운 遊藝的 態度”를 멀리하며 “自己 自身을 擁護하고 向上케 하여서 朝鮮 文壇의 確立을 꾀하는 데”⁷¹⁾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후 ‘문인회’는 1923년 4월 1일 기관지로 『퇴내쌍쓰』를 간행했지만, 기관지는 “『페이지』 수도 만치 못하며 테제도 훌륭하지 못하”⁷²⁾다는 언급처럼 분량, 체제에서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또 문인들이 참여하는 ‘문사극’ 공연을 꾀했지만 그것 역시 제대로 공연되지 못했다. 이후 뚜렷한 활동을 전개하지 못하다가 1924년 1월 『廢墟以後』를 발행했는데, “이 잡지를 문인회의 기관지로 할 것이 아니라 문인회의 과반수를 동인으로 한 폐허이후사로 하기로 하였다”는 기사처럼 『廢墟以後』를 ‘문인회’의 기관지로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든다.⁷³⁾

69) 『어린이』는 『개벽』, 『부인』(이후 『신여성』으로 개칭됨.)에 이어 ‘개벽사에서 발행한 세 번째 잡지였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린이』 제14호, 1924.3, 표지 뒷면; 『어린이』 제18호, 1924.7, 43면 참조.

70) 「文藝運動의第一聲」, 『동아일보』, 1922.12.26, 3면; 「機關紙까지發行 조선문인회사업」, 『동아일보』, 1923.1.7, 3면.

71) 염상섭, 「文人會組織에關하여」, 『동아일보』, 1923.1.1, 신년호 4호 1면.

72) 「文人會의第一事業 雜誌『文藝復興』창간」, 『동아일보』, 1923.4.4, 3면.

『廢墟以後』에 실린 글에는 ‘문인회’의 활동이 부진했던 이유에 대한 언급이 있다. “知慧와 膽力과 手腕으로” “現象을 바꾸려 하다가 失敗한다면” “오히려 悲壯하고 痛烈한 맛과 빛”은 있지만 그것과는 달리 ‘문인회’는 “事實을 事實대로 放任하거나 혹은 籠絡되는 것”이며 “「自己」를 側面으로 睨視하고 嘲笑로써”⁷⁴⁾ 대했다고 했다. 조명희의 주장은 ‘문인회’ 활동이 활발하지 못했던 이유와 함께 염상섭이 언급한 문인의 함의에 온전히 접근할 수 있게 해 준다.⁷⁵⁾ 그는 문인들이 “自身에 對해서나 남에게 對해서나 너무도 生活의 責任感이 不足하여 왔”는데, 그것은 “곧 生活에 忠實하지 못하다는 意味”라고 했다. “남들과 가티 賣名心이 없으며 志操가 높다고 글”을 “내지 않는다고 하”는 데서 벗어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라져가는 싹을 복돋아 일으키려는 誠心을 가져야”⁷⁶⁾ 한다는 것이다.

앞선 글들은 ‘문인회’ 활동의 부진이 문인들이 지조나 이름을 판다고 글을 발표하는 일을 꺼리는 것, 곧 생활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파악한다. 문인들이 그러한 사실을 방임하거나 조소하고 ‘문인회’에 참여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 ‘문인회’ 활동이 부진했던 이유에 대한 진단은 ‘문인회’ 결성의 의도를 보다 분명히 말해준다. ‘문인회’의 결성은 당시까지 문인들 사이에서 방기되어 왔던 글을 쓰는 것과 생계를 영위하는 것, 곧 문학과 생활과의 관계를 환기하기 위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것은 문인들이 글을 쓰는 일을 통해 경제적 대가를 추구하는 것, 곧 자신이 쓴 시나 산문을 신문이나 잡지 등의 미디어 등에 발표하고 정당하게 원고료나 인세를 받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과도 연결이 된다. ‘원고료 협정’의 문제가 ‘문인회’의 논의 안건에서 빠지지 않았던 것은 ‘문인회’가 ‘원고료 따위를 따지던 이익 집단’이라서가 아니었다.⁷⁷⁾ 원고료나 저작권의 문제가 문학과 생활의 관계, 곧 글을 쓴다는 노동 행위를 통해 정당한 대가를 얻을 수 있는 먼저의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⁷⁸⁾ 이러한 ‘문인회’의 취지를 고려하면 『개벽』이 ‘문

73) 『廢墟以後』에 글을 실은 필자들이 『퇴내쌍쓰』의 후속이라는 데 반대했을 수도 있고 많은 ‘문인회’의 회원이 글을 신지 못 해 기관지를 표제로 하는 데 부정적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참여가 저조한 상황에서 『퇴내쌍쓰』가 발행되었음을 고려하면 전자일 가능성이 높다.

74) 「同人記」, 『廢墟以後』, 1924.1, 135~136면.

75) 여기에 관해서는 염상섭, 「勞動運動의傾向과勞動의眞義(六)」, 『동아일보』, 1920.4.25, 1면 참조.

76) 「同人記」, 앞의 잡지, 1924.1, 134~135면.

77) 김윤식, 『염상섭연구』, 서울대 출판부, 1987, 246~264면 참조.

인회' 결성에 주목하지 않은 것은 한계로 남는데, 그 음영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다.

V. 변화의 음영과 '새로운 경향'의 문학

김기진은 1923년 7월 「Promeneade Sentimental」의 발표하는 것을 계기로 『개벽』에 연이어 글을 발표했다. 김기진이 『개벽』에 일련의 글들을 발표했던 것은 조선에 '새로운 경향'의 문학을 정초하는 과정과 맞물려 있었다. 박영희는 당시 김기진에 대해 “確實히 文壇의 새로운 存在”로서 “새로운 『센세이션』을 일으키었”다고 했다. 그 이유를 앞선 문학과는 달리 “현실에 직면하여 현실과 싸우려는 것”, “현실 생활 속에서 文學을 찾고 그 속에서 문학을 창조하자는 것”⁷⁹⁾이었다는 데서 찾았는데, 이 역시 앞서의 언급과 연결되어 있다. 바꾸어 말하면 박영희의 언급은 프로문학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경향'의 문학이 『개벽』을 기반으로 발아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박영희 자신이 1925년 1월 『개벽』의 학예부 주임이 되어 '이광수론', '계급문학시비론' 등 특집 기획을 통해 『개벽』 문예면의 성격을 뚜렷이 해 나간 것 역시 그 연장선에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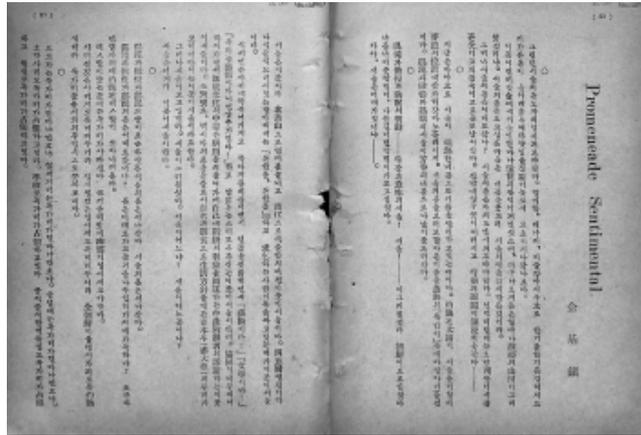
김기진은 「Promeneade Sentimental」, 「눈물의巡禮」 등에서 “서울의 봄은 자취도 업”어지고 “어대를 가나 눈물이 있다”며 “모든 것이 독가비의 춤에서 놀고 잇”⁸⁰⁾는 것이라고 해, 당시 현실의 억압성을 상징적으로 피력했다. 또 바르뷔스(Henri Barbusse)와 롤랑(Romain Rolland)의 논쟁을 세 차례에 걸쳐 소개하면서 사회주의에 자본주의 제도를 붕괴시킬 임무를 부여하는 것에 동조하기도 했다. 「支配階級敎化·被支配階級敎化」, 「今日の文學·明日의文學」 등에서는 자본주의를 붕괴시킬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문학은 자본주의 제도의 억압에서 영혼을 구출하는 혁명의 도구로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78) 여기에 관해서는 염상섭, 「勞動運動의傾向과勞動의眞義(六)」, 앞의 신문, 같은 날짜, 1면.

79) 박영희, 「現代朝鮮文學史」, 『사상계』, 1958.12; 「草創期の 文壇側面史」, 『현대문학』 60호. 여기에서는 이동희 외 편, 『박영희 전집』(II), 영남대 출판부, 1997, 325~327·461면 재인용.

80) 김기진, 「눈물의巡禮」, 『개벽』 43호, 1924.1, 231·234면.

그런데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그 도구로서 문학의 의미를 주장하던 김기진은 얼마 지나지 않아 힘오와 환멸에 빠졌음을 토로한다. 「마음의廢墟 겨울에서서」, 「TWILIGHT」 등에서 그는 “荒涼한 朝鮮에는 사랑이 업”다며 “이 朝鮮이라는 亡할 놈의 곳”에는 “한 놈도 쓸 녀석이 업”⁸¹⁾다는 친구의 말을 환기하기도 했다. 또 「幻滅期의朝鮮을넘어서」에서는 “머리 속에서 뽑아내 노흔 놈드란 로직크는 놈게 올르면 올를사록 나의 발싸당은 아래로 아래로 내려갓섯다”며, “上昇하는 精神과 下降하는 肉體를 恣意하게 操縱하지 못하고 均衡을 일헛”⁸²⁾다고 이론과 현실의 괴리에 대해 호소하기도 했다. 여기에서 당시 행적에 관한 김기진의 언급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2〉 1923년 7월 『개벽』에 게재된 「Promeneade Sentimental」의 서두 부분이다. 김기진은 이 글을 계기로 일련의 글을 『개벽』에 발표하게 된다. 원문 이미지의 출처는 '아단문고'이다.

偶然히 어쩐 親舊의 紹介로 苦心하지 안코 就職이라고 헛섯는데, 그제의 所感이라고는 「이거 내가 안할 짓을 한다. 내가 차저가 본 그 사람의 곳에 자리가 나기를 가만히 안저서 기달리는 것이 조헛슬 켜테」 하는 생각이 恒常 쉰나지 안혀서 도모지 귀찬헛슬 쉰입니다.⁸³⁾

인용은 김기진이 지인의 소개로 취직을 하고 나서 후회를 토로한 것이다. 이 글의 관심은 그가 입사한 직장이 ‘매일신보사’라는 데 있다. 정인익의 소개로 ‘매일신보사’

81) 김기진, 「TWILIGHT」, 『동아일보』, 1924.6.30.

82) 김기진, 「幻滅期의朝鮮을넘어서」, 『개벽』 46호, 1924.3, 13~14면.

83) 김기진, 「土月會에서나와서原稿로」(〈卒業하고나서職業을求하기까지〉), 『별건곤』 5호, 1927.3, 58~59면.

의 편집국장 이기세를 찾아간 김기진은 일요일에 발행되는 ‘일요부록’을 담당하게 된다. 당시 결혼을 하는 등 생계에 곤란을 겪었더라도 스스로 ‘총독부 기관지’라고 비판한 ‘매일신보사’에 취직을 한 것은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그 도구로서 문학에 대한 주장과 상반된 행위였다.⁸⁴⁾ 당시 지인 Y에게 “남의 말을 바더다 파는 사람도 너가티 無責任하지는 안을 짓”이니 “맛당히 新聞에 廣告하고 謝罪할 일”이라고 심한 비난을 받았다고 했는데, 비난은 ‘매일신보사’에 입사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기진 스스로도 당시 일에 대해 ‘앞은뺨이를 면하기 위해 수선한 몸이 다시 절름발이가 된 것’이라고 자책한 바 있다.

김기진은 문학을 초월의 영역에 위치시켰던 1920년대 동인지 문학을 부정하면서 ‘새로운 경향’의 문학을 도입하려 했다. 동인지 문학은, 미디어를 직접 창간하는 방식을 통해 문학 장에 편입했으며, 기존 문학에 대한 거부로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았다. 그것은 “초연합의 가치를 인정하고, ‘경제’(상업적인 것)를, 그리고 (단기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거짓 부정하는 위에 세워진 것으로, 자율적인 역사로부터 나온 특수한 요구들과 생산을 특권시”해⁸⁵⁾ 나가는 과정과 맞물리는 것이다. 문제는 동인지 문학이 ‘경제적인’ 이익에 대해 거짓 부정이 아니라 진짜 부정을 하는 데로 나아갔다는 점이다.

김기진의 지향은 모순된 현실을 근간으로 해 그것과 직면하여 모순을 타파하려 하는 등 동인지 문학과 반대편에 자리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동인지 문학의 그들이 김기진의 그것에도 질게 드리워져 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혁명에서 문학은 무기나 수단으로만 의미를 지닌다는 김기진의 주장이 곧 환멸, 혐오에 빠져든 것 역시 그 그들과 멀리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인지 문학은 ‘문학’을 ‘현실’에서 벗어난 가치로 상정했는데, 그들에게 ‘현실’이라는 존재는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는 ‘문학’의 반대편에 위치한 것으로 충분했다. 앞서 확인한 것처럼 그들이 경제적인 문제 등 현실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이유 역시 그것과 관련되어 있었다. 김기진은 조선에서 필요한 것은 혁명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며 혁명을 무엇보다 우선하는

84) 김기진은 1925년 최승일, 송영, 윤기정, 이호 등 ‘염군사’의 성원들이 찾아와 같이 일을 하자고 제안했을 때 문인의 범주를 벗어나 정치행동을 하는 것이 탐탁치 않아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 역시 이 시기 김기진의 행적과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기진, 「나의回顧錄 ②」, 『세대』 15호, 283면 참조.

85) Pierre Bourdieu, 하태환 역, 『예술의 규칙』, 동문선, 1999, 192쪽.

과제로 삼았다. 그런데 ‘현실’이 혁명의 필요를 위해 호출되었다는 점에서 김기진의 ‘현실’ 역시 동인지 문학이 주장한 ‘현실’의 데자뷰처럼 느껴진다는 것이다.⁸⁶⁾

김기진이 당시 ‘매일신보사’에 입사한 것 역시 이와 관련해서 파악될 필요가 있다. 혁명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과 총독부 기관지라고 비난했던 신문사에 입사하는 일의 간극은 ‘절름발이’라는 자책을 넘어설 정도로 모순적이다. 김기진의 주장은 현실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혁명이 필요하다는 것, 모든 운동은 혁명으로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 문학 역시 혁명의 도구로서 의미를 지닌다는 것 등으로 집약되며, 그것은 마치 하나의 과정처럼 원인에서 결과로 이어져 있다. 단계를 거쳐 나아가는 과정은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오류에 빠지게 되는데, 실제 김기진은 순서의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 현실에 대해 등한시했다. 그의 주장과 활동이 당시 경계를 만들어갔던 ‘새로운 경향’의 문학의 근간으로 자리하게 된다는 점에서 앞선 모순은 김기진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었다. 여기에서 조심스럽게 질문 하나를 던져볼 수 있다. ‘새로운 경향’의 문학을 주장했던 문인들이, ‘혁명’의 반대편에 관념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직시해야 했을 ‘현실’은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질문이다.

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아가 쉽게 환멸이나 혐오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식민지 조선에서 자신들과 같은 문인이 처한 현실에 주목해야 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모순으로 가득 찬 조선의 현실에서 문인의 온전한 역할을 환기하는 방법이기도 했을 것이다. 당시 문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집필한 시나 산문을 신문, 잡지 등의 미디어 등에 게재하고 원고료를 받아야 한다. 『개벽』의 경우 예외적으로 높은 원고료를 지급했지만 ‘예외적’이라는 자의대로 그것은 드문 경우였다. 『창조』, 『폐허』, 『백조』 등 동인지의 짧은 생명이 경영상의 문제였다는 것,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에 문학을 위한 지면이 제대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앞서 살펴보았다. 문인으로 살려고 해도 극히 제한된 공간을 제외하고는 발표할 지면이 없는 상태, 더구나 그것을 통해 경제적 대가를 획득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1920년대 전반기의 문인들이 처한 현실이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1922년 중반부터 이루어졌던 『개벽』 문예면의 변화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이전까지 ‘개벽사’와 관련된 필자들에서 벗어나 필진의 문호를 개방하

86) 김기진의 초기 활동이 지니는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는 박현수, 「프로문학의 제도적 연원-김기진의 경우」, 『민족문학사연구』 60, 민족문학사학회, 2016, 74-90면 참조.

는 것이었다. 하지만 1922년 중반부터 이루어져 1923년 신년호에서 정점을 이루었던 필진의 개방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했다. 1923년 『개벽』 문예면에 발표한 작가들이 일부에 한정됨은 앞서 검토한 바 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그 일부에 김기진, 박영희 등 ‘새로운 경향’의 문학을 주장한 문인들도 자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문예면의 변화가 지닌 음영은 크게 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김기진이 조선의 현실에서 필요한 것이 혁명임을 주장했지만 그 현실은 자신이 주장하는 혁명의 반대편으로 상정된 것이었음을 검토한 바 있다. 이를 고려하면 김기진이 방정환과의 인적 교류에 의해 일련의 글을 『개벽』에 발표했다는 것은 양가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파악된다. 문학이 혁명을 통해 자본주의 제도를 극복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예외적으로 높은 수준의 원고료를 받을 수 있었던 『개벽』을 통해서 제기되었다는 모순이 그것이다. 『개벽』이 조선에서 ‘새로운 경향’, 나아가 프로문학을 발아하게 하는 ‘온상’의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의도와는 달리 ‘머리에서 나온 로직’이 ‘발바닥을 붙이고 있는 지반’과 교섭할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는 역할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문예면 필진의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몇몇의 문인들에게 한정되었다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필진의 확대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보다 많은 작가들이 『개벽』에 글을 게재하고 노동의 대가로 원고료를 받는 경험을 했을 것이다. 『개벽』에 글을 게재하고 원고료를 받는 경험은 글 쓰는 것과 생활하는 것의 관계, 혹은 글을 써서 생활을 영위하는 것에 대한 고민의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문학과 생활의 관계에 대한 고민은 다른 신문이나 잡지에 글을 발표할 때도 연장이 되어 글을 쓰는 행위를 통해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얻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깨닫는 데로 나아갔을지도 모른다.

당시 필화사건으로 인해 엄격해진 검열에서 문학은 정치, 시사, 사회 등과는 다른 존재로 받아들여졌다. 문인 회동, ‘문예특집’, 원고료 지급 등 『개벽』, 『동명』, 『동아일보』 등 미디어의 움직임이 나타난 것 역시 비슷한 즈음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문인들에게는 요구되었던 것은 먼저 “藝術이나 文學이라는 것은 遊戱요, 娛樂”⁸⁷⁾이나 “粉紅빛 아지랑이 속에 쌓여있는 꿈같은 世界”⁸⁸⁾로 받아들이는 데서 벗어나는

87) 염상섭, 「文人會組織에關하여」, 앞의 신문, 같은 면.

88) 김기진, 「나의 回顧錄 ①」, 『세대』 14호, 1964.7, 172면.

일이었다. 비록 온전한 성취를 이루어내지는 못했지만 ‘문인회’는 문인들이 글을 발표하기를 꺼리는 데서 벗어나 생활에 충실하기 위한 방법, 곧 문학과 생활의 관계에 대해 거듭 환기하고자 했다. 『개벽』 문예면 개방의 음영을 더듬어 보는 자리에서 유희적 태도에서 벗어나 생활에 충실해야 한다는, 또 글을 쓰는 행위에 대해 온전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원고료, 인세 등의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문인회’의 주장이 떠오르는 것은 우연일까?

참고문헌

- 『대한일보』, 『동아일보』, 『매일신보』, 『시대일보』, 『조선일보』
『개벽』, 『동명』, 『백조』, 『별건곤』, 『세대』, 『신동아』, 『신천지』, 『어린이』, 『유심』, 『조광』,
『조선문단』, 『창조』, 『천도교회월보』, 『청춘』, 『폐허』, 『폐허이후』
- 김윤식, 『염상섭연구』, 서울대 출판부, 1987
민족문화사연구소 엮음, 『새 민족문화사강좌 2』, 창비, 2009
박종화, 『歴史는 흐르는데 靑山은 말이 없네』, 三慶出版社, 1979
윤병로, 『박종화의 삶과 문학 -미공개월탄일기평설』, 성균관대 출판부, 1992
이동희 외 편, 『박영희 전집 II』, 영남대 출판부, 1997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5, 지식산업사, 1989
조연현, 『韓國現代文學史』, 성문각, 1969
천도교청년회중앙본부, 『천도교청년회80년사』, 글나무, 2000
최수일, 『『개벽』 연구』, 소명출판, 2008
홍정선 편, 『김팔봉문학전집』 II, 문학과지성사, 1988
前田愛, 유은경 역, 『일본근대독자의 성립』, 이룸, 2003
鳥越信, 『近代日本兒童文學史研究』, おうふう, 1994
紅野謙介, 「投機・思索の對象としての文學・懸賞・小説・相場」, 『文化の市場:交通する』, 東京大學出版部, 2001
Pierre Bourdieu, 하태환 역, 『예술의 규칙』, 동문선, 1999
- 민규호, 「牛步 閔泰瑗」, 『韓國言論人物史話: 8·15前篇』 上, 大韓言論人會, 1992
박현수, 「1920년대 전반기 미디어에서 나도향 소설의 위치-『동아일보』, 『개벽』 등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42, 상허학회, 2014
_____, 「프로문학의 제도적 연원-김기진의 경우」, 『민족문화사연구』 60, 민족문화사학회, 2016
_____, 「1920년대 전반기 미디어와 문학의 교차-필화사건, ‘문예특집’, ‘문인회’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74, 민족문화사학회, 2020
유석환, 「근대 문학시장의 형성과 신문·잡지의 역할」,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3
이경돈, 「1920년대 초 민족의식의 전환과 미디어의 역할 -『개벽』과 『동명』을 중심으로」, 『사
림』 23, 2005
이중호, 「일제시대 아나키즘문학 형성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5
정병욱, 「조선식산은행원, 식민지를 살다」, 『역사비평』 78, 역사문제연구소, 2007
한기형, 「잡지 『新靑年』과 경성청년구락부」, 『서지학보』 26, 서지학회, 2002

동인지와 프로 '문학'의 사이, 그리고 『개벽』

藤田圭雄, 「「童話」という呼び名」, 『兒童文學』, 有精堂, 1977

仲村修, 「方定煥研究序論 -東京時代を中心に」, 『青丘學術論集』 14, 1999

Between 'the literature' of literary coterie magazine and proletaria, and <Gae-byeok>

Park, Hyun-Soo

In the history of literature, 1922 and 1923 are regarded as stagnation periods, but <Gae-byeok> was admitted as a space for presentation of literature. At that time, the literature of literary coterie magazine in the 1920s almost ended. Also, there was no space for literature in the newspaper media. The media was interested in literature and writers, but it was not persistent. It was in mid-1922 that the literary section of the <Gae-byeok> changed. It was the issue of January 1923 that symbolically showed the change of the literary section. Previously, the writer was an employee or related person of <Gae-byeok>. The person who led the change in the literary section was Bang Jung-Hwan. He took an interest in literature while working as an executive at Cheon-do-gyo. He realized the status of literature anew through studying in 'Tokyo'. Since January 1923, the change of the literary section has not continued. The first reason was that there was no category of 'literary world' at the time. The following reason is that <Gae-byeok> was published as a Chon-Do-Gyo's journal. And the most important reason is that the opening of the literary section was achieved through human interchange. Kim Gi-jin published a series of articles in <Gae-byeok>, which was the process of pioneering 'new trend' literature in Joseon. He emphasized the proletarian revolution, but soon fell into disillusionment. His visit to <Mae-Il Newspaper> for a job is also related to this. It was contradictory that the claim of revolution was made in <Gae-byeok>, which paid expensive manuscript fees. It is also regrettable that the opening of the literary section was limited to a few people. Discussing the limitations of the literary section of <Gae-byeok> brings to mind the arguments of the 'Literary Society'.

Key Words : <Gae-byeok>, literary coterie magazine, the literary section, Bang Jung-Hwan, Chon-Do-Gyo, literary world, revolution, 'Literary Society' etc.